
새시대 교수법 149호 한국공학교육기술학회 / 조벽

Judge a man by his questions rather than his answers -- Voltaire

(사람을 알려면 대답보다는 그가 어떤 질문을 하는가 보라.)

지난 호의 연속으로 강의 평가서에 자주 등장하는 항목의 타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의 평가 항목 3. 교수님은 학생들이 한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왔다.

이 평가 항목을 얼핏 들으면 별 대수롭지 않은 말 같이 들립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보면 이 항목은 고난도 교수법 기술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학생들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우려면 일단 학생들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디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질문을 합니까? 강의 시간 내내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라고 신신당부해도 하나 둘 나올까말까하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학생들로부터 질문을 받는 것처럼 목 빠지게 기다려야 하는 것도 없는데 어느 세월에 스스로 답까지 하도록 유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평생학습이 중요하다는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지식.정보화 시대의 지성인 양성에 목표를 둔 대학은 이 항목을 강의 평가에 넣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교육자라는 평을 들으려면 적어도 이 항목에서만만큼은 만점을 받아야 되겠지요.

하지만 이 항목에 만점은 고사하고 높은 점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학생들은 상당수가 질문하기를 꺼려하고 스스로 답을 추구하기를 "귀찮아"하기 때문입니다. 치밀한 작전과 매끈한 기술의 뒷받침 없이 선불리 질문을 유도하고 답을 유도하다 보면 교수님 혼자 "썰렁"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학생들이 질문과 대답에 시큰둥한 이유가 있습니다. 초중고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매일 "공부해!"란 잔소리에 떠밀려 공부하고, 알고 싶은 것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야 하는" 시험 예상 문제에 대한 정답만 달달 외우던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의 인지발달에 대한 연구 논문을 보면 대학교 신입생의 압도적 대다수가 '의존적 학습자'의 차원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초중고에서 열린교육을 실시해도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답할 수 있는 '독립적 학습자'로 발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18~9세 미만의 학생들은 '독립적 학습자'가 될 만큼 성숙한 인지발달 단계에 도달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초중고에서 '독립적 학습'에 대한 마음 자세와 습관을 심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학 교육 과정은 달라야 합니다.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할 즈음에는 '독립적 학습자'로 발전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질문을 하고 스스로 답을 추구하는 기회를 많이 주어야 합니다.

<잔소리 코너>

이 항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새시대 교수법 109호에 적었던 내용을 약간 각색하여 이번 호에 다시 적어 봅니다.

교수님께서 질문하고 스스로 답하면 최하급 강의,

교수님께서 질문하고 학생이 답하면 조금 발전한 강의,

학생이 한 질문에 교수님께서 답하면 바람직한 강의,

하지만 최상급 강의는 학생이 한 질문에 학생 스스로 답하도록 유도합니다.

© 조벽, 2002

이전 발간물은 웹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http://www.me.mtu.edu/~peckcho/korean.htm>

이 무료 간행물을 직접 받아 보시기 원하시면 subscribe teachwell-1 을 적어 peckcho@mtu.edu로 보내시면 자동 가입됩니다.

가입을 취소하실 경우에는 unsubscribe teachwell-1 을 적어 peckcho@mtu.edu로 보내시면 됩니다.

다른 사항은 조 벽 교수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peckcho@mtu.edu 전화: 미국(906) 487-2891 팩스: (906) 487-2822
